

03

우리가 그리는 초록 미래

- 1 자연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고 생태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다.
- 2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미술 작품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 3 환경을 변화시키는 미술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미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



우리는 하늘과 산, 들꽃과 풀 등 자연과 함께 살아간다. 자연은 인간의 시작이자 바탕이므로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과 내가 하나임을 이해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을 생태 감수성이라고 한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생태 감수성이 지닌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IMJ 나무 위의 집(이스라엘/2014년)
이스라엘 박물관의 청소년관 안뜰이다. 대지와 나무를 보호하는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키워 보자! 생태 감수성

생태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연과 교감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을 탐구할 수 있다. 다양한 표현 활동과 미술 체험으로 생태 감수성을 키워 보자.

자연에서 아름다움 찾기



▲ 조세랑(한국/1977~) 끈 거북(종이에 수묵 채색/56×138cm/2018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풀잎을 활용해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본 작품이다.

환경에 관한 지식 올리기



◀ 숫자로 보는 기후변화(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인포그래픽/2021년)

▶ 박호빈 외 5명(학생 작품) 바닷속 사랑 이야기(부분/종이에 채색/27×54cm) 주인공 해파리의 사랑 이야기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동화책이다.

안녕! 우리 튼튼한 나무야.

우리는 사랑거리의 바람이야.

나는 바람을 맞고 기분이 좋은 꽃이야.



▲ 김세찬 외 10명(학생 작품)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퍼포먼스/3분 10초) 자연의 위치에서 움직임을 관찰하고 퍼포먼스로 표현하였다.

자연에 감정 이입하기



▲ 슈무(김주연)(한국/1994~) 낮잠2(우드컷/35×56.5cm/2019년) 나무 합판을 조각한 작품이다. 멸종 위기 동물들이 편안히 휴식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였다.



예술적 체험으로 UP



환경의 위기를 생각하는 미술

자연을 고려하지 않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는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를 낳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과학,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술 분야에서도 생태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인다. 생태 위기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을 살펴보고 환경 위기를 생각하는 미술 작품을 함께 제작해 보자.

지도에 없는 섬

태평양에는 쓰레기로 만들어진 섬이 있다. 적도의 고기압으로 발생한 소용돌이가 바닷물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빨아들이며 생긴 섬이다. 90%가량이 썩지 않는 비닐과 플라스틱인 이 섬은 2011년쯤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 정도 크기였지만 2022년에는 우리나라의 16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확대되었다.



▲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해양 생물이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 88쪽 「인류세의 위험을 알리는 경종: 생태와 환경의 보존에 동참하다」 참조



우리나라 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바다거북 34마리 중 28마리의 몸에서 플라스틱이 180g이나 발견되었다고 해.



▲ 안현빈(학생 작품) 해양 생물의 위기(혼합 재료/35×25×25cm)

▼ 태평양에 플라스틱이 모여 섬을 이룬 모습



▲ 고아림(학생 작품) 우리가 쓰레기를 먹고, 쓰레기가 우리를 먹는다(페뮴, 종이에 채색/39×27cm)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은 하루 평균 1만 2,000톤이 넘었다. 그중 44.2%가 재활용되지 못했고. 이런 심각성을 우리 함께 작품으로 표현해 보자!



▲ 덴추 제이미 시푸(Dentsu Jayme Syfu/필리핀/2005~) 죽은 고래(그린피스)(페플라스틱/3×22×3m/2018년)

기후난민

기후난민은 기후위기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말한다. 남태평양의 섬 투발루는 최고 해발 고도가 4~5m이다. 이 나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1년에 5mm씩 잠기고 있어 국민 전체가 기후난민이 될 위기에 놓였다.

기후난민은 투발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는 미국 마이애미와 보스턴, 중국 상하이 등 대도시에도 예견된 일이다. 누구나 기후난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 해수면이 상승하여 침수된 집을 바라보는 투발루 주민



2019년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억 톤으로 199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김진아(학생 작품) 육식의 나비 효과(종이에 채색/20×10cm) 햄버거를 펼치면 육식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난다.



▲ 지난 30년 동안 북극에서 가장 두꺼운 얼음의 95%가 녹아 사라졌다. 북극의 동물들은 집을 잃고 멸종 위기에 처했다.



▶ 박민서 외 4명(학생 작품) 지구 온난화의 공포 (혼합 재료/60×45×45cm)



기후변화로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해수면의 높이가 평균 9.1cm 상승하였다. 해수면 상승 문제를 표현한 작품을 함께 살펴보자!



▲ 니티비르타(Niittyvirta, Pekka/핀란드/1974~), 아호(Aho, Timo/핀란드/1980~) 선(57°59'N, 7°16'W)(LED 설치/가변 크기/2018년) 해수면 상승이 계속되면 미래에 건물이 잠기는 높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LED 조명을 설치한 작품이다.



내 손에서 피어나는 지속가능한발전

전 세계는 지속가능한발전을 목표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대책과 방법을 세우고 있다. 지속가능한발전이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법이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발전의 의미를 담은 미술 활동을 진행해 보자.



▲ **지속가능한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에서 채택한 이 17가지 목표는 2030년까지 이행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이다. 경제 성장과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빈곤이나 질병과 같은 인류 보편 문제, 지구 환경 문제, 사회 경제 문제 등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하였다.

버려진 재료로 만들어 볼까?



▲ **용만스**(Jongmans, Suzanne/네덜란드/1978~) **동지-감수성**(디지털 프린트/75×60cm/2015년) 작가는 버블 랍이나 과일 포장지, 비닐봉지 등 버려지는 것으로 중세 시대의 의상을 재현했다. 무분별하게 소비재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을 고려한 소비를 장려하려는 의도를 표현했다.



▲ **브래드퍼드**(Bradford, Robert/영국/1970~) **푸푸**(혼합 재료/100×78×110cm/2012년) 버려지는 장난감을 이용해 다채로운 색감의 조각품을 제작하였다. [@ 2권 46~47쪽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입체」 참조](#)

미술실에서 버려지는 재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요.



▲ **전진영 외 3명**(학생 작품) **폐품으로 만드는 우리 동네 랜드마크**(페젠티 상자에 채색/60×45×54cm) 재활용이 불가능해 버려진 폐품이 상자를 활용하여 우리 동네의 랜드마크를 제작하고 전시한 작품이다.

◀ **바하강**(Barragão, Vanessa/포르투갈/1992~) **해양 태피스트리**(페젠티/2018년) 작가는 공장에서 버린 모직물의 실을 풀어 생태계 파괴로 죽어 가는 산호를 표현하였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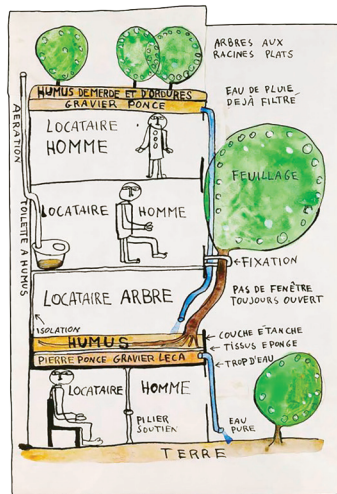
▲ IBUKU 스튜디오(인도네시아) 그린 스쿨의 아크(2021년) 지속가능발전전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 소재인 대나무를 활용해 설계한 건축물이다. 비영리 사립 학교, 그린 스쿨 안에 세운 이 건축물은 체육관 겸 광장 역할을 한다.



▲ 김민서 외 3명(학생 작품) 자연 도서관(혼합 재료/40×50×60cm) 나무 그늘을 2층의 휴식 공간으로, 바위를 사람들이 앉는 의자로 구상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도서관을 모형으로 만들었다.



▲ C사 도시 숲 프로젝트 중 폴란드 바르샤바(벽화/2020년) C사에서 개발한 이산화 타이타늄이 함유된 광촉매 페인트로 그린 벽화이다. 공기 중의 오염 물질과 미세 먼지를 빨아들인 뒤 햇빛을 받아 인체에 무해한 질산염으로 분해된다. C사는 이 페인트를 활용하여 여러 도시에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 Friedensreich/오스트리아/1928~2000) (좌) 바트 블루마우 호텔 (1997년), (우) 나무 세입자권(종이에 수채/미상/1976년) 훈데르트바서는 인간이 지은 건물에 나무가 살 수 있는 권리인 '나무 세입자권'을 주장하였다. 식물과 함께하는 건축 설계는 훈데르트바서 건축의 핵심 요소이다.

환경의 치유와 성장을 꿈꾸다



▲ 강술생(한국/1982~) (좌) 하나의 호박에서 얻은 36개의 호박(디지털 프린트/114x114cm/2021년) (우) 하나의 수숫대에서 얻은 113개의 수숫대(디지털 프린트/114x114cm/2021년) 작가는 방치되어 있던 약 330m(100평)의 땅에 늙은 호박과 수숫대의 씨앗을 심고 키운 결과물을 작품으로 내세워 한 사람의 행동이 가져온 생태 변화를 이야기한다.



▲ 김이박(한국/1982~) 식물 영양소(철 제 가구, 식물, LED 조명, 선풍기/가변 크기/2017년) 아픈 식물을 치료하는 작품이다.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담았다.



◀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의 체험형 미술 프로그램 '대청호 쓰담쓰담'(2022년) 미술관은 참여자 100명을 모집하여 미술관 기념품과 플로깅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키트를 제공하였다. 플로깅은 쓰레기를 주우면서 하는 조깅을 의미한다. 참가자들은 키트를 이용하여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쓰레기를 미술관에 제출하였으며 미술관은 이것으로 전시를 기획하였다.

알고 가기 생태 미술

생태 미술이란 생태계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 생태 시스템을 재생, 복원하려는 예술 장르이다. 생태 미술가들은 단순히 자연환경을 미술 재료로 사용하던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발전과 생태의 치유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한다.

대지 미술?
이건 무슨 표시야?

정리와 보충에
용어 설명이 있다는 거야.



▲ 드루리(Drury, Chris/영국/1948~) 갈대의 심장(대지 미술/가변 크기/2005년) 흙, 나무, 돌 등 자연을 활용하는 대지 미술에서 나아가 상수 침수 지역의 생태를 보호하고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려는 계획으로 제작한 생태 미술 작품이다.

▲ 손피스트(Sonfist, Alan/미국/1946~) 시간 풍경(대지 미술/가변 크기/1978년) 작가는 도시 내 숲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미국 뉴욕 맨해튼에 원시림을 조성하였다.

표현 재료

종이컵, 휴지 심, 신문지, 티백, 버려진 페트병, 친 환경 발포 세라믹, 원예용 상토, 씨앗, 유성펜 등



1 모종 키우기나 분갈이 등의 용도를 생각하며 여러 가지 폐품을 모으고 화분을 구상한다.



2 구상한 모양을 떠올리며 폐품을 자르거나 붙이고 채색하며 화분을 제작한다.



3 제작한 화분에 식물을 키우고 가꾸며 느낀 소감을 공유한다.



발아시키기

▲ 지원우(학생 작품)
아기 바질을 업은 거미(혼합 재료/6×12×12cm)



모종 키우기

원활한 탄소 공급을 위해 모종 화분은 종이 재질로 만드는 것이 좋아.

▲ 김윤아(학생 작품) 바질을 위한 휴지 심 모종 화분 (종이에 채색/8.5×4×4cm)



화분에서 키우기

▶ 문지원(학생 작품) 모딜리아니 화분 (플라스틱에 채색/26×12×16cm)

▼ 정민우(학생 작품)
용기종기 다육 친구들(폐품에 채색/가변 크기)



- 생태 감수성을 가지고 다양한 미술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가?
- 환경을 주제로 한 여러 미술 작품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발전에 참여하는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자연에 초대된 손님입니다.
자연에 예의를 갖추십시오.
-훈데르트바서- 🍃

미술은 여러 분야와 융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확장된 미술 분야가 어떻게 환경을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그 영향력을 헤아려 보자.

→ 쿠오리 프로젝트 - 폐기물로 생분해성 대체 소재를 개발하다

스위스의 바젤디자인예술대학교의 사라 하버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쿠오리 프로젝트는 유기 폐기물의 업사이클링을 목표로 새로운 재료를 연구한다. 쿠오리는 바나나 껍질의 폐기량에 주목하여 바나나 껍질을 이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였다. 2021년 고분자 공학 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현재는 신발 밑창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폐기되는 바나나 껍질을 활용하여 기존 플라스틱 밑창이 배출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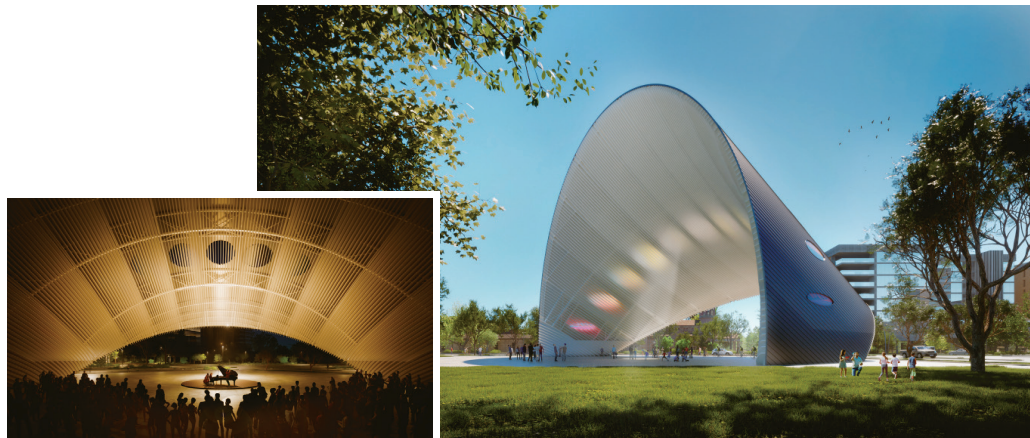


▲ 쿠오리 프로젝트(KUORI Project/2021~) 바나나 껍질을 이용하여 개발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깔창



→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공 미술

해시계를 모티브로 제작한 이 작품은 그늘이 있는 야외 공간에서 시간마다 변화하는 조명 디스플레이를 감상할 수 있다. 만남과 휴식, 공연 감상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지역 사회의 태양광 시설로 매년 40만 kWh를 생산할 수 있으며,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동안 1,200만 kWh 이상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 마리아노(Mariano, Riccardo/이탈리아/1985~) 시간의 아치(설계 예상 모델링/(좌)내부 모습, (우)외부 모습/2019년)



▲ 빙하 영상 제작을 위해 가파른 빙산에 올라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벨로그의 모습



▲ 벨로그(Balog, James/미국/1952~) 우마나크 피오르드(크로모제닉 프린트/84x127cm/2007년)

→ 빙하의 변화를 사진과 영상으로 시각화하다

2007년 벨로그는 예술과 과학을 통합하여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대중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 단체를 설립하였다.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인 벨로그는 이 단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남극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등 빙하 지역의 변화 과정을 사진과 비디오 작업으로 기록하였다. 그 작업을 바탕으로 전시회에 참여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린다.



01 나와 세계

» 자연미와 인공미

- 자연미: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지형 조건, 다양한 생물 등 인간과 함께 자연적으로 공존하는 아름다움이다.
- 인공미: 인간의 필요에 따라 가공된 것이 지닌 아름다움을 인공미라고 한다.

» 자연환경과 인공 환경

-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은 인공 환경으로 급속하게 변하였으며, 이는 우리 삶의 방식에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 다양한 감각과 지각

-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으로 세상을 지각한다. 이 같은 감각을 이용해 주변 세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공감각

공감각은 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푸른 종소리’와 같이 소리에 색깔을 부여한 문학 표현이나 음악의 운율을 기하학적 선과 형태로 표현한 칸딘스키의 그림 등이 공감각을 잘 구현한 예이다.



▲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러시아→프랑스/1866~1944) 검은 아치가 있는 그림(유화/189×198cm/1912년)

사회 참여 미술

사회 현상에 참여하고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고자 하는 미술이다.



▲ 루빈(Rubin, Jon/미국/1963~) **컨플릭트 키친**(Conflict Kitchen/상업 레스토랑/2010~2017년)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비영리 테이크 아웃 레스토랑이자 미술 프로젝트이다. 미국과 분쟁 중인 국가의 요리를 6개월 한정으로 제공하였다. 사진은 북한 요리를 제공하던 시기에 촬영한 것이다.

02 나의 꿈을 그리다

» 다양한 미술 직업

순수 미술	화가, 조각가, 공예가, 행위 예술가, 도예가, 사진작가 등
미술 교육, 연구	미술 교사, 대학교수, 미술 평론가, 미술 사학자, 저작권 관리자 등
미술 전시	큐레이터(학예사), 도슨트, 미술 경매사, 문화유산 복원사, 미술관 관장 등
디자인	시각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광고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등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만화가,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 디자이너, 애니메이션 기획자 등
영상, 무대 공연	영화감독, 미술 감독, 무대 미술가, 특수 효과 기술자 등

» 미술 직업인과의 인터뷰 과정

- 직업인 탐색과 선정: 인터뷰하고 싶은 미술 직업인을 탐색하고 선정하여 인터뷰 일정을 조정한다.
- 인터뷰 사전 자료 조사: 대상 인물을 조사하면서 어떻게 질문을 구성할 것인지 논의하고 질문을 만든다.
- 인터뷰 진행: 대상 인물을 만나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 활동 마무리: 인터뷰를 하고 난 뒤 알게 된 인물의 생각과 아이디어, 자신의 소감 등을 정리한다.

03 우리가 그리는 초록 미래

- 대지 미술: 암석, 토양, 눈 등 자연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미술 양식이다.



▲ 아마르사이한 남스라이자브(Amarsaikhan Namsrajav/몽골) 땅의 소리(대나무/380×650×320cm/2022년)

- 생태 미술: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태 시스템을 재생, 복원하려는 예술 양식이다.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 생태 건축: 건축과 생태계의 상호 관계를 중시하며 자원 소비를 줄이고 생태계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건축이다.